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39호 현대불교  
2007년 8월 1일(음력 6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부처님 없는 데는 없다!

### 참다운 예배가 되려면...

**문** 법당에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이 단지 2500년 전에 돌아가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근원에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뿐 아니라 많은 불자들이 중생인 내가 완벽한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게 뭐고서 기독교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타력과 다를 바 없이 돼 버리는 것 같습니다. 스님, 어떠한 마음으로 예를 올려야 부처님께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으며 부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수행을 해 나가야 할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부처님은 높이 계신 것도 아니고 낮게 계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신 데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고 법당에 계신 그 부처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부처님의 법이 내 법이고, 부처님의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나하고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올릴 때 진짜로 거가다가, 한 군데에다가 그냥 올리면 됩니다. 한군데에다가 동글러서 올라가 되면 전체의 이름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전체가 포함되고, 또 우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삼 배를 올리든지 바쁘면 일 배를 올리든지 올리고는 자기한테다가 다시금 일임해서 놓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부처 없는 데가 없죠. 그게 여러분을 두고 말씀드릴 거죠. 여러분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부처님이 어떻게 살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사실은, 한마음 속으로 들면 하나도 없을 것이요 한마음 속에서 집량이 나오면 헤아릴 수 없이 광대무변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은 움직여지지 않으면서도 만법을 들고 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바로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태초요, 화두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알아야 된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하여 괴로움이나 고통함, 액이나 병고와 있다는 것, 모든 것이 자기한테서 나온다는 것을 안다면 한번 뒤집어 생각해서 바로 자기한테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깥으로 그달리는 이 마음은 한계가 있지만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쫓아 나오는 것은 바로 우

리가 진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창조력입니다. 우린 정신력으로써 사대에 다 통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가에서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오신통에 관한 건은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통마루우면 통 누고 졸리면 잠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앉고 싶으면 앉고 싶고 싶듯이 말합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먹고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이것이 바로, 과학이 따로 없고 진리가 따로 없고 부처님 법이 따로 없고 우리 생활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부처님 법이 다 있는 것이지 나를 떠나서 무슨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죠. '만약에 어디에서 능력이 있어서 나를 장구벌레로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난 그걸 탓 안 하겠다. 내 이 생각이 잘못이라면 부처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선 밀고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든 가난치 않든 간에 자기 마음에서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한생각이 자기들 구덩이에 빠뜨릴 수가 있는가 하면 한생각이 구덩이에 빠진 걸 건져 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알아들으실까 봐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움직여지듯,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되듯 이렇게 삼합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자칫 잘못 끌고 가면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차는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마음에 따라서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병이 들고 또 가난해지고 망하고 이런 수가 많죠.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흥인 선사께서 육조 스님을 삼경에 맡았을 때 말씀하신 말이 마음에 하시면서 『금강경』을 설하셨는데 그 대답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난 말을 똑같은 말씀이지만 지금 현실에서 내가 느끼고 체험한 결론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래 우리 자성이, 본래 내 속에 내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림살이 빼놓고 나 빼놓고 뭐가 남는가? 또 '본래자성불은 일체가 둘이 아닌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모두가 고정됨이 없이 공공 공체 공식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조금도 어감이 없다고

됩니다. 또 "우리가 둘이 아닌 까닭에 본래자성불이 둘 아니게 나누는 걸 어떻게 알았으리까." 자세히 말을 해 드리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래자성불은 움직여지지 않으면서도 일체 만법을 들고 내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 저 부처님 형상이 바로 우리의 형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저 부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저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니 둘이 아니게 회전 즉, 공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겁니다. 무조건 맹종하고 무조건 노예가

이 하던데요, 관상과 부적이 불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요?

**답** 예전엔 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이 지 금처럼 이렇게 많았던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한 십리 나가야 또 마음이 있고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에 어느 스님이 지나다 보니 저 마을에 필연적으로 사대가 나서 마을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이치가 보이거든요. 참 그, 살아 있는 부처님이죠. 그래서 이 스님이 그 사람들이 모르니깐 방편으로 종이에다가 써 가지고선 "이거를 불교에 어느 날 어느 시에 피신을 해라." 이렇게

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심상 하나가 좋으면 모두가 이 얼굴 자체도 전부 웃게끔 돼요. 그리고 심상을 잘못 쓰면 손장난도 나쁘게 나가죠. 걸음걸이도 나쁘게, 나쁜 일 하러나간 막 돌아가죠? 그러니깐 족상이 나쁜 거고 수상도 나쁜 거고 관상도 나쁜 거죠. 그러니깐 '심상 하나만 올바르게 생각을 잘 해낸다면 관상도 수상도 족상도 다 좋으니까. 이래서 공력이 되느니라. 그러나 족상이니 수상이니 관상이니 불 게 아니라 심상 하나만 진짜로 잘 보고 잘 쓴다면 이것은 세세생생에 공덕을 이룰 것이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게 생각해 보면 허탕한 것들을 하고 있다 이 소립니다. 보면 병이 안 보이면 약이예요. 때에 따라서는 모르겠랑 아예 보일 말아요. 차라리 모르면 편안하게 마음을 들으셔서 편안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이구, 올해는 뭐가 또 안됐는지 없을까?' 하고선 가서 온통 관상도 보고 부적도 사고, 뭐 또 점도 치고 이렇게 보죠. 그러면 좋은 게 세 가지라면 언짢은 건 일곱 가지나 돼요. 그러니 누가 언짢고 누가 언짢고 누가 좋고 이러니까 그냥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다 그냥 나올 수 없게 주고 나오는 건 또 좋아요. 와서까지도 이 보리에 아주 앞출달송하게 잡채해 들어가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조금만 일이 안돼도 '아이구, 그걸 안 해서 그렇구나!' '아이구, 이것이 이렇게 돼서 그렇구나!' 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아주 올바르게 먹고살기도 급급하고 참 고통스러운데, 하물며 왜 굶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고통을 받느냐 이 소립니다.

애고나 질병이나 망상 같은 거, 업보 같은 거 이 모든 것이 애당초부터 불어 있던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잠재해 있는 그 관습 때문에 아이구, 요런 건 요렇게 생각을 하고, 요런 건 요렇게 생각을 하고, 요거... '아이구,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기에 이래?' '아이구, 죄를 그대로 많이 짓기에 그렇겠지.' 하면서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애고가 생기면 더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즉 그 일어나는 마음이 그 업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항상 내가 이런 말을 하죠.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다고요. 시공이 없이 돌아간다고. 그렇게 빨리 돌아옵니다. 빨리 돌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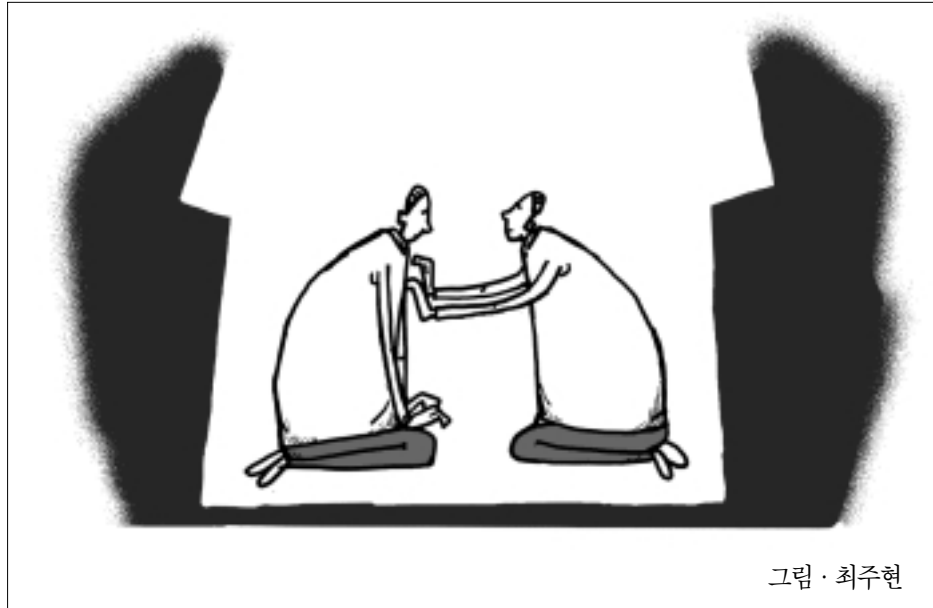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때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나의 중심, 중용, 중도로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자기 주인공을 진심히 믿고 몰려서지 않는 그 마음에 도달해야만 이 자신을 자신 속에서 발견함으로써 이 세상이 둘이 아니게 공존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둘이 아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나타나서 진화한다는 그 사실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 관상과 부적에 대해서

**문** 요 근래에 경기가 어렵고 취직이 안되다 보니 점집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점집에 가 보면 꼭 부처님을 모셔 놓고 부적을 해라, 사주가 어떻다 관상이 안 좋다 이런 말들을 말

일러 줬던 말입니다. 그러니깐 스님을 믿고 따르게끔 만들기 위해서 방편을 쓴 거죠. 부적을 믿게 했죠, 이제, 즉 전지 줄과 전지줄이 한데 합쳐지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니까 전지줄과 전지줄이 한데, 마음과 마음을 한데 불이 들어오기 위한 방편이죠. 그래서 그렇게 스님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 방편을 쓴 것인데, 이제는 장사가 돼 버렸죠. 얼마짜리 얼마짜리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이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도깨비장난이요, 귀신짓이요 모두가 다!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그 뜻과 가르침을 진정코 제대로 받아서 행하지 못하는 소행입니다.

그리고 관상이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상을 올바르게 가진다면 관상도 좋아질 거고 수상도 좋아질 거고 족상도 좋아진다 이겁니다. 심상 하나만 좋으면, 잘나고 못나고 이것

원주생식은 자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2.56%  
녹색채소, 담배채소, 황색채소 22.8 31.9%  
바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원주생식은 원주스님의 손길과 정성, 자연건강까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자연이 가르쳐준 그대로의 방법으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을 제대로 살려 원주생식을 만듭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   |  |   |
|---|--|---|
| <p>자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전하는 원주생식 2개월분 60,000원</p> | <p>건강에 좋은 유채 원주발아생식 2개월분 60,000원</p>         | <p>자연의 건강함을 복되게요 원주참생식 2개월분 80,000원</p> |
| <p>건강을, 믿을 수 있는 영양 원주홍생식 2개월분 80,000원</p>   | <p>100% 국산콩을 선별하여 만든 원주청국장분말 1kg 20,000원</p> | <p>장미의 영양을 원주 원주청국장완 1kg 25,000원</p>    |

무상사 현장점 주문처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1111-1번지 소비자상담실 (053)986-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매일주: 무상사)

### 다생업장 단박에 닦아내는 수행 金剛經 금강경

—休스님 강의

- 9월개강 오전반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오후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주 제 부처님이 보시는 현실 삶의 금강경  
현실 삶에서 보는 부처님의 금강경

### 전통강원 학인모집

- 초발심자경문 · 한문반
  - 학기: 2007년 9월 - 2007년 12월
  - 정원: 15명 ◆강의: 금요일 오후 2시
- 치문경훈반
  - 학기: 2008년 3월 - 2009년 2월
  - 정원: 15명 ◆강의: 수요일 오후 2시

\*재가학인 약간명 수강 가능함

반야사 경산강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4-79 우암빌딩 3층 TEL. 02)762-0039

###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헌 불 전 함

움직이거나  
터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특 043-647-2378, 011-467-1472

### 2007 학년도 불교법패작법전수원 신(편)입생 모집

불교의식을 기초과정부터 전문과정까지 체계적으로 배우실분 모집합니다.

|           |  |
|-----------|--|
| 기초과정 (1년) | <p>중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불공 &lt;&lt;매주 목요일 오후 1시~3시&gt;&gt;<br/>상주권공(법매), 사물다루는법, 작법(나비춤, 바라춤) &lt;&lt;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gt;&gt;</p> |
| 개 강       | 8월 16일 목요일 오후 1시   |
| 전문과정 (1년) | <p>천도재(49재), 정안의식, 구명시식, 작법 &lt;&lt;매주 수요일 오후 1시~5시&gt;&gt;</p>  |
| 개 강       | 8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   |

▶ 구비서류: 이력서 1통,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 준 비 물: 필기도구, 녹음기, 태정, 목탁, 요령

### 불교법패작법전수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50-1(문막1.C~문막방향 3분거리)  
☎033)731-7759 / 011-269-4168